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6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을지로 인쇄촌 재개발 앞두고 갈팡질팡**

인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을지로 일대 인쇄사들이 새로운 보금 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1983년 6월 24일자 인협신보는 속칭 인쇄촌으로 불리는 서울 중구의 을지로 입구와 수하동 일대가 동년 9월초에 착수될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이곳에 밀집되어 있는 5백여 소규모 인쇄업체들이 별다른 이전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슬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보는 이를 위해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영세한 규모의 인쇄업체들이 몰려 있던 곳. 여기에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제16 및 17지구를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착수하기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일대의 인쇄업체가 대부분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서 시설 및 자본의 영세성 때문에 점포·사무실 등 주로 상가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것.

신보는 인쇄업종이 공업배치법상 특수도시형산업으로 분류되어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건축법상의 규제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단시일안에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을지로 일대에 밀집되어 있던 5백여 개의 인쇄사중에서 10% 미만의 인쇄소만이 이전했거나 곧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대부분은 뚜렷한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쇄사들이 용산이나 영등포, 인현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 역시 적절한 장소가 별로 없었고, 인현동과 초동의 경우 임대료만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현상을 초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됐다. Y인쇄사의 B사장은 "건평 1백평 정

도가 필요한데 을지로3가 쪽에 임대건물을 마련했으나 이 지역의 도시재개발사업 착수기간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전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하소연했다.

자가건물을 가지고 있던 D사의 K사장은 "인현동 지역에서는 가정집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아쉬워했다. D사의 L사장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상황만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동사업지구안에 있는 인쇄업체들이 국가발전과 정부시책에 적극응응, 사업시행 전에 자발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인쇄사들이 이 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영업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상의 이전허용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일부 건물의 포함문제와 설계 변경 절차 등이 확정되는대로 동년 9월초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4×6판 양면전용기 호평**

1982년 6월 11일자 인협신보는 인쇄기계의 설계와 제조기술에 있어 탁월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일본의 대성기계와 제이·엠 인쇄기계가 파트너가 되어 개발한 4×6 전판 양면인쇄 오프셋 인쇄기인 'PRINTA-X' 에 대한 호평을 담았다.

이 인쇄기는 크기가 작으면서도 고속이 보장되어 조작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 신보는 이미 1호기가 1981년 7월에 납품된데 이어 계속적으로 생산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① 이용범위가 넓은 4×6 전판기로 개발되었다는 점 ② 최고 10,000매/시간의 빠른 생산능력 ③ 단면기와 다른 점 ④



양면기는 중심이 높기 마련이지만 이 기계는 종래의 국전판 양면기보다 높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박스형 프레임을 채용하여 탄탄한 구조라는 점 ⑤ 특수강을 사용한 구동기어로 인해 내구성이 높다는 점 ⑥ 모든 재료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근 자재를 사용,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계가공과 마무리 작업을 정성껏 했기 때문에 기계가 정밀하다는 점 등이다.

● 인쇄기자재의 국산화는 언제쯤

1982년 6월 25일자 인쇄신보는 시론을 통해 동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던 드루파82 전시회에 대한 관람평을 실으면서 국산 인쇄기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보는 드루파82를 '인쇄업계의 올림픽'에 비유하며 세계규모의 정보와 진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열린 이 전시회에서 세계29개국의 1천2백40개사가 출품하여 문자 그대로 첨단기술의 각종 인쇄기자재들을 자랑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회장에 출품국 29개국의 국기가 대회기간 내내 계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남다른 감회를 표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전시회에는 우리나라 인쇄인을 비롯 외국인의 각종 인쇄기자재를 공급하는 대리점과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60~70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자부심과 감회에도 불구하고 신보는 우리나라가 '메이드인 코리아' 인쇄기자재를 한 점도 출품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아쉬움이자 업계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특히 공업입국의 기치 아래 전국 곳곳에 대단위 공장들을 건설했고, 이들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유독 인쇄기자재는 일부화학약품과 수동식 기계를 제외하고는 제판필름으로부터 인쇄기, 윤전기에 이르기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신보는 모든 제조업이 그렇겠지만 하나의 품목생산을 위해서는 그 제품의 시장성과 수지채산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인쇄업계가 벤치마킹해야 할 국가로 일본을 꼽았다.

● 여름철 건강 식이요법은 매실장아찌로

서서히 본격적인 더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시기다. 이에 1994년 6월 14자 인쇄신문에 실렸던 기사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상식을 소개한다. 바로 매실장아찌이다.

매실장아찌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식이요법으로 일본에서는 '더운 밥에 매실장아찌 한 개'라는 말이 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만유의 영양인 매실장아찌가 필수로 되어 있다.

위가 약한 사람 대부분이 위산과다나 궤양증세로 시달리는데 이를 위한 약제는 대개 중조(탄산수소나트륨)가 주성분이다. 그러나 중조는 위산을 중화시켜 주지만 위산과다의 근원을 치료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촉진시킬 수도 있다. 중조에 의해 중화된 산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의 자극으로 위에 산이 많아서 점막을 거칠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실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앞에서 말한 중조의 작용을 하면서도 순수한 자연식품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아침식사로 더운밥에 매실장아찌 한 개를 섭취하면 과다한 위산을 중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경쾌한 컨디션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 매실장아찌는 특히 직장여성이나 여학생들의 도시락에 곁들이면 좋은데 밥이 쉬거나 부패,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